

발행 천주교 서울대교구 | 발행인 염수정 | 편집 홍보국 주보편집팀 | 인쇄 가톨릭출판사

전화 02)727-2114 |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홍보국



자양2동성당 | 1983년 8월 설립

입당 송 |

거룩하신 어머니, 찬미받으소서. 당신은 하늘과 땅을 영원히 다스리시는 임금님을 낳으셨나이다.

제1독서 | 민수 6,22-27

화답 송 | 시편 67(66),2-3.5.6과 8(◎ 2ㄱ)

- ◎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당신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소서. 당신의 길을 세상이 알고, 당신의 구원을 만민이 알게 하소서. ◎
- 당신이 민족들을 올바로 심판하시고 세상의 겨레들을 이끄시니, 겨레들이 기뻐하고 환호하리이다. ◎
- 하느님,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들이 당신

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느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세상 끝 모든 곳이 그분을 경외하리라. ◎

제2독서 | 갈라 4,4-7

복음환호송 | 히브 1,1-2 참조

◎ 알렐루야.

- 하느님이 예전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네. ◎

복 음 | 루카 2,16-21

영성체송 | 히브 13,8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든 오늘도 또 영원히 같은 분이시다.



2018년 제51차 세계 평화의 날 담화문(요약)

이민과 난민: 평화를 찾는 사람들

제51차 세계 평화의 날 담화문 전문은
홍보국 홈페이지(<http://cc.catholic.or.kr>) 참조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모든 민족에게 평화를 빕니다! 전 세계 이주민들에 관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곳을 찾으려고 그들은 역경과 고난을 견뎌야 하며 울타리와 장벽에 직면합니다. 그 모든 사람을 자비심으로 끌어안으시다. 올바른 이해된 공동선을 해치지 않는 한계 내에서 새로운 공동체에 가입하려는 사람들을 받아들이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규적 통로로 이주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다른 방도를 선택합니다. 그들이 향하는 많은 목적지 국가에서는 인간 품위를 깎아내리는 과장된 외침이 확산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들을 관상하는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용기와 재능과 에너지와 열망, 그리고 고유문화라는 보화를 가지고 옵니다. 그들은 자



신들을 받아들여 준 나라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또한 이 관상하는 시선이 공공의 선익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의 식별을 이끌고, 환대의 정책을 추구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그들이 평화를 찾을 기회를 제공하려면 네 가지 행동, 곧 환대하기, 보호하기, 증진하기 그리고 통합하기를 결합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환대하기’는 국가에 합법적으로 들어가도록 선택의 폭을 넓혀 주고 몰아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호하기’는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하며, 착취당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하는 의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증진하기’는 온전한 인간 발전을 지원하는 것을 수반합니다. ‘통합하기’는 자신들을 환대하는 사회의 생활에 온전히 참여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화로운 세상을 향한 ‘꿈’을 여럿이 공유하고, 이에 대한 이민들과 난민들의 공헌을 평가할 줄 안다면 인류는 모든 이의 가정이 되고 이 지구는 참으로 ‘공동의 집’이 될 것입니다. 프란치스카 하비에르 카브리니 성녀를 기억합니다. 이 여성은 이민자들을 섬기는 데 생애를 봉헌하였고 그들의 주보성인이 되었습니다. 성녀의 전구로써 다음 말씀을 체험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의로움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이들을 위하여
평화 속에서 심어집니다.

”

교황 프란치스코

Francisc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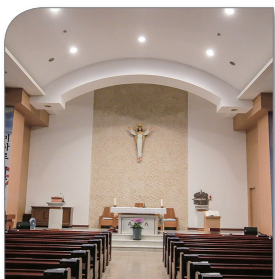
2018년 신년 메세지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새해에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하느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특별히 복녘의 갈라진 형제들에게도
 주님 은총이 충만히 내리기를 기도합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모두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나눔이 필요한 이때에
 우리 모두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 곳곳에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가장 먼저
 가정에서부터 사랑과 일치를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희망찬 새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느님의 평화와 사랑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8년 1월 1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교구장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

염수정 추기경



자양2동성당 서울특별시 광진구 독성로58길 8

수유1동성당 자양2동성당 신월동성당



자양2동성당은 1983년 8월 모본당인 구의동성당에서 분리, 설립되었습니다. 1984년 2월 성골롬반 외방선교회 소속 류 데니스 신부가 본당 초대주임으로 부임하였으며, 1985년 4월에는 성전 건립 기공식을 가졌고 본당 주보는 권득인 베드로 성인입니다. 2008년에는 성전 담장을 철거하여 마당을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하였고, 2011년 4월에는 본당 30주년을 기념하여 성당 외벽을 화강암 재질로 바꾸는 공사를 진행하여 현재의 본당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명중 시몬 신부 | 전산정보실 부실장